해외곡물시장 뉴스

해외곡물시장 뉴스

북아메리카

미국

미국산 옥수수 · 대두작황, 소폭 감소전망
크롭투어, 옥수수수확량 매우 풍부하게 전망하지는 않음
미국 기상청, 엘니뇨 발생가능성 60–65%로 낮춤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항구근로자, 다음주 파업

아프리카

이집트

이집트 GASC, 9월 21–30일 선적분 밀 구매계획
이집트 GASC, 프랑스 및 루마니아산 밀 120,000톤 구매

아시아

중국

2014년 중국 조생쌀 생산량, 전년대비 0.4% 하락
중국, 금주까지 대두 2.2백만 톤 판매
2014년 중국 옥수수생산량, 가뭄으로 전년대비 2.2% 하락전망
중국, 미국산 대두 4.8백만 톤 구매합의

한국

한국의 쌀 수입관세 500% 초과전망
한국, 2015년부터 쌀수입관세 513%로 결정

유럽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분쟁이 일어난 지역의 곡물손실 15%로 전망
2014년 우크라이나 밀수확, 24.4백만 톤 완료

러시아

러시아산 밀가격, USDA의 상향전망으로 하락
러시아 곡물연합에 따르면 2014/15년 러시아 곡물수확량 사상최고치

독일

ADM, 2014년 독일의 밀 및 유채씨 증가전망

1. 미 국

▌미국산 옥수수 · 대두작황, 소폭 감소전망

애널리스트들은 USDA 주간작물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옥수수 및 대두작황은 미국 콘벨트 지역의 건조한 기후로 다소 하락할 것이나 여전히 사상최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북부 사우스다코타뿐만 아니라 중서부지역, 특히 네브래스카 남부 및 서부를 아우르는 서부벨트 지역이 가뭄이 심하다고 한다. 또한, 콘벨트 지역의 중부지역도 지난주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애널리스트 리치넬슨은 "지난주 아이오와와 일리노이주 대부분 지역에 가뭄이 있었다. 그러나 수분부족은 금주 강우소식으로 보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일요일까지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USDA 보고서에서 옥수수의 73%가 좋음/아주 좋음 등급에 속할 것이며 이는 전주대비 변화가 없으나 5년 평균 8월 중순 작황인 약 56%는 훨씬 상회하는 수치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시장전망치도 71~73%범위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대두는 8월이 꼬투리가 맺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주 가뭄은 옥수수보다 대두작황에 더욱 차질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대두의 69%가 좋음/아주 좋음 등급으로 지난주 70% 수준을 하회할 것이나 이 시기 평년평균인 57%는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시장전망치도 69~79% 범위에 있다.

한편, 봄밀작황은 70%가 좋음/아주 좋음 등급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USDA는 미국동부 기준 월요일 오후4시에 주간작황보고서 및 밀수확보고서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겨울밀 수확은 98%완료로 지난주 95%에서 다소 진행되었으며 봄밀은 16% 수확완료로 지난주 6%에 비해 꽤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2014.8.19.)

www.krei.re.kr

크롭투어, 옥수수수확량 매우 풍부하게 전망하지는 않음

프로파머 미드웨스트 크롭투어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옥수수수확량은 일각에서 전망하는 것만큼 풍년은 아닐 것이라며, 최근 4년래 최저치로 하락했던 옥수수가격을 지지하였다. 크롭투어는 수율을 에이커당 169.3부셸로 추정하여 일부 민간추정치인 170부셸을 하회하는 수준이었지만 생산량 전망은 140.93억 부셸로 여전히 사상최고치였다. 이러한 크롭투어의 전망치결과는 매년 미국 옥수수생산의 랜드마크로 간주되는데, 그 이유는 총 옥수수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7개주 전반의 현장관측을 통해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부 콘벨트 지역의 이상적이지 않았던 봄과 여름기후도 일부 민간단체의 평균수율추정치인 170부셸 달성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었다. 서부 아이오와와 미네소타 지역의 옥수수는 과도한 강우로 변종 등 생장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였다. 특히, 미네소타의 미성숙한 옥수수는 올가을 서리위험에 처할 우려가 높으며 일부 농가들은 매우 높은 습도를 함유한 옥수수를 수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크롭투어는 미국의 대두수율에 대해서는 에이커 당 45.35부셸, 생산량은 38.12억 부셸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USDA의 현재전망치와 일치하며 사상최고치 수준이다. 관측된 지역은 총 대두생산의 약 62%에 해당한다고 한다. USDA 작물전망보고서는 9월11일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4일 동안의 크롭투어의 조사샘플은 사우스다코타,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지역 중 옥수수농가는 1,327곳, 대두농가는 1,289곳이라고 한다.(2015.8.23.)

미국 기상청, 엘니뇨 발생가능성 60~65%로 낮춤

미국 기상청은 북반구의 가을과 겨울에 발생하는 엘니뇨 발생가능성에 대해 60~65%로 예측하고 있다. 기후예측센터(CPC)는 지난달 엘니뇨 발생가능성을 65%로 낮췄으며, CPC 보고서에 따르면 "9~10월에 발생하는 엘니뇨 현상은 올해 늦가을과 초겨울에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라고 한다. 태평양 해수면 온난화로 인한 엘니뇨는 미국과 남미의 홍수 및 호우를 유발할 수 있으며 동남아시아 및 호주에는 가뭄을 야기할 수 있다. (2014.9.4.)

2.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항구근로자, 다음주 파업

아르헨티나 항구 근로자들은 임금분쟁으로 다음 주 약 4일간 전국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곡물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인상 속도가 인플레이션 증가속도보다 낮다고 한다. 항구직원은 "곡물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역 없는 연속 4일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2014.9.12.)

3. 중 국

▌2014년 중국 조생쌀 생산량, 전년대비 0.4% 하락

쌀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올해 조생쌀 3,401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작년대비 0.4% 하락한 수준이라고 한다. 통계청은 이러한 하락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올해 조생쌀 재배면적이 지난해 5,795만 ha 대비 0.2% 하락했다고 한다. 중국은 세 시즌의 쌀을 재배하고 있는데 올해 총 쌀 생산량은 207.3백만 톤으로 예상된다고 한다.(2014.8.22.)

▌중국, 금주까지 대두 2.2백만 톤 판매

중국정부는 금주 주간경매에서 정부비축분 대두의 39%를 판매했으며, 이는 지난주보다 증가한 수준이라고 한다. 정부는 337,539톤 중 132,135톤을 톤당 평균가격 4,125위안에 판매했으며 이는 지난주 판매물량 105,282톤보다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는 8월26일 경매에 345,894톤을 톤당 평균가격 4,126위안에 붙였으며 그 중 30.4%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정부의 총판매량은 올해 5월 경매이후 2.21백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2014.9.3.)

www.krei.re.kr

2014년 중국 옥수수생산량, 가뭄으로 전년대비 2.2% 하락전망

중국은 가뭄으로 인해 2014년 옥수수수확량이 2010년 가을수확량 이후 약 2.2% 하락했다. CNGOIC에 따르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세 지역의 올해 옥수수수확량은 213.8백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가뭄피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옥수수공급량은 초과상태이며 60백만 톤 이상의 정부비축 재고분이 있다고 한다. (2014.9.11.)

중국, 미국산 대두 4.8백만 톤 구매합의

중국은 미국산 대두 4.8백만 톤, 즉 23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미국 수출업자와 합의했다. 월요일 국제무역회의에서 맺어진 21개의 구매합의는 매년 양국 간 맺어지는 계약이다. 2013/14년, 중국은 미국산 대두 28백만 톤을 구매했으며 이는 미국의 판매분 중 60%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2014/15년에는 미국산 대두 30백만 톤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9.16.)

4. 한 국

한국의 쌀 수입관세 500% 초과전망

중국정부는 금주 주간경매에서 정부비축분 대두의 39%를 판매했으며, 이는 지난주보다 증가한 수준이라고 한다. 정부는 337,539톤 중 132,135톤을 톤당 평균가격 4,125위안에 판매했으며 이는 지난주 판매물량 105,282톤보다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는 8월26일 경매에 345,894톤을 톤당 평균가격 4,126위안에 붙였으며 그 중 30.4%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정부의 총판매량은 올해 5월 경매이후 2.21백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2014.9.3.)

한국, 2015년부터 쌀수입관세 513%로 결정

한국은 국제무역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입품목인 쌀수입

제한을 해지한 후, 대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쌀수입관세를 513%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제무역기구(WTO)는 이달말에 관세율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을 것이며 10월에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연도 종료되는 WTO 수입할당제도하의 연간 의무수입량 409,000톤은 쌀시장개방 이후에도 관세율 5%선에서 유지될 것이며, 그 수준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513%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은 최소 400% 이상의 관세율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내 쌀산업 보호를 위해 WTO 농업협정 관세율범위 중 최대치를 선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는 야당이나 쌀산업발전협의회와 논의된 결정이 아니라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민연맹 중 일부는 관세화제도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것이며, 513%의 관세율은 쌀산업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농민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확대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4.9.18.)

5. 이집트

▌이집트 GASC, 9월 21~30일 선적분 밀 구매계획

이집트 GASC는 월요일에 9월 21~30일 선적분 국제밀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을 설정했다. GASC 부의장 압델 파타는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폴란드, 아르헨티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로부터 연질밀과 제분용밀을 구매할 계획이다. 입찰은 현지시간으로 화요일 정오까지 GASC에 도착해야 하며, 같은 날 3시 반 이후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밀가격은 FOB기준이다. 지난 7월30일 이루어진 국제밀 구매에서 GASC는 9월11~20일 선적분 러시아산밀 175,000톤을 구매했다. (2014.8.28.)

▌이집트 GASC, 프랑스 및 루마니아산 밀 12만 톤 구매

이집트는 프랑스 및 루마니아산 밀 12만 톤을 구매했으며, 특히 프랑스산 밀은 근 8개월래 구매다. GASC는 그라니트로부터 프랑스산 밀 6만 톤과 번기로부터 루마니아산 밀 6만 톤을 톤당 평균 248.89달러에 구매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www.krei.re.kr

면, 그라니트로부터의 프랑스산 밀 6만 톤은 톤당 FOB 240.40달러, Mina Shipping으로부터 톤당 화물비용 17.50달러로 구매했으며, 번기로부터 루마니아산 밀 6만 톤은 톤당 FOB 247.24달러, National Navigation으로부터 톤당 화물비용 12.64달러에 구매했다. (2014.9.3.)

6.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분쟁이 일어난 지역의 곡물손실 15%로 전망

우크라이나는 분쟁이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동부 두 곳의 지역에 15%의 곡물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15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소비에트 공화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동부지역에 몇 달 전 친러세력 폭동이 발생하면서 곡물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우크라이나 야체눅 제1부총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분쟁 및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15%의 곡물수확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2014년 곡물수확량이 작년 사상 최고치였던 63백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들도 약 60백만 톤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수확량은 각각 2.2백만 톤, 1.3백만 톤인데 지난해 통계기준 약 15%를 산정한다면 500,000톤으로 7월의 손실추정치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2014.8.20.)

▌2014년 우크라이나 밀수확, 24.4백만 톤 완료

우크라이나 농업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14년 밀수확을 거의 완료한 상태이며 수확량은 24.4백만 톤을 초과한다고 한다. 한편, 작년에 우크라이나는 22.3백만 톤의 밀을 수확했다고 한다. 또한, 농가들은 2015년 겨울밀 재배면적을 올해 6.1백만 헥타르에서 6.2백만 헥타르로 약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겨울밀은 우크라이나의 전체 밀 생산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강우로 인한 전체적인 밀 품질하락 우려로 동물사료용 밀이 많이 생산되는 반면 높은 품질의 제빵용 밀 생산은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제분용 밀 생산비중은 2013년 75%에서 60-65%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14.8.28.)

7. 러시아

▌러시아산 밀가격, USDA의 상향전망으로 하락

지난주 러시아산 밀수출가격은 USDA의 흑해공급 상향전망으로 하락했다. USDA에 따르면, 러시아는 흑해를 통해 밀을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으로 올해 59백만 톤의 밀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며 이는 이전 전망치인 53백만 톤을 상회하는 수치라고 한다. 또한, USDA는 우크라이나 밀수확 전망치도 1백만 톤 상향조정했다. USDA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향전망은 수확보고서에 기초하며 특히 러시아는 매우 높은 밀수확이 기대된다." 라고 덧붙였다. (2014.8.18.)

▌러시아 곡물연합에 따르면 2014/15년 러시아 곡물수확량 사상최고치

러시아 곡물연합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사상최고치의 곡물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출도 사상최고치에 달할 것이며 국가비축분도 보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기후여건이 이상적으로 유지된다면, 2014/15년 곡물수확량은 2008/09년 사상최고치인 108백만 톤을 초과할 것이다. 러시아 곡물연합의 현재 곡물수확 전망치는 104백만 톤이며 이는 밀 60백만 톤을 포함하며 정부의 공식 곡물추정치인 100백만 톤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올해 곡물수출 전망치는 30백만 톤으로 8월은 4백만 톤으로 7월의 3백만 톤을 상회한다고 한다. 그 중 밀수출 전망치는 22백만 톤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2014.8.27.)

8. 독 일

ADM, 2014년 독일의 밀 및 유채씨 증가전망

독일의 주요 곡물기업인 ADM은 2014년 독일의 밀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유채씨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DM에 따르면, 2014년 독일의 밀생산량 전망은 26.04백만 톤으로 2013년 24.6백만 톤보다 상향조정되었다고 한다. 이는 7월 추정치와 일치하며 독일농가연합 추정치인 26.2백만 톤과도 비슷한 수치였다. 또한, ADM의 2014년 유채씨 생산량전망은 6.08백만 톤으로 작년 5.76백만 톤보다 소폭 상향된 수준이었다. 이는 7월 추정치인 6백만 톤을 상회하며 농가연합전망치인 5.8백만 톤과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독일의 반복적인 강우로 밀수확은 지연된 편이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품질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유채씨는 수확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2014.8.20.)